

67개 대학·전공 경계 넘어 첨단기술 배운다

30일 '코-워크 아카데미'... 학생 3000여 명 참여, AI·반도체 등 융합 교육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간 협력 교육과정을 선보인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5일간 강원 평창 알펜시아에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사업의 일환인 제4회 코-워크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반도체, 지능형 로봇 등 첨단 분야 인재 육성을 목표로 대학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8개 분야 연합체를 시작으로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5개 분야를 추가 선정해, 현재 총 18개 분야의 연합체를 지원하고 있다.

18개 분야는 인공지능, 미래자동차, 항공·드론, 이차전지, 그린바이오 등이 있다.

'코-워크 아카데미'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참여대학 학생들이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다양한 첨단분야의 우수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총 67개교의 33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 강좌는 영어로 진행된다.

또한, 이번 행사는 야외에서 진행되는 특별강연과 '월정사 마음산책', '도립예술단 환영공연' 등 강연도와 평창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한다.

참여 학생들은 5일간 다양한 첨단분야를 폭넓게 접하며 융합 역량을 기르고 여러 대학의 교수 및 학생들과 상호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아울러, 사전에 수강신청을 하고 현장에서 강의를 수강하면 각 소속 대학의 학칙 등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른 교수님의 수업방식을 접하고 다양한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는지 볼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다" "차세대 통신 분야 입문용 강의를 들

었는데, 저의 전공 분야인 전자기기가 통신 분야와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오석환 차관은 "첨단기술 분야는 학문 간 융합이 활발하므로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자유롭게 배우는 교육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 "코-워크 아카데미가 대학, 전공, 국적의 경계를 넘는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수현 기자 su00329@dailycn.net**

상명대, 예술치유·로봇기술 실무 교육 성과

학생 주도 프로그램 선보이며 소통·기술 교류의 장 주목

상명대학교(총장 홍성태)가 문화예술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학생 주도형 프로그램을 잇따라 선보이며 실무 중심 교육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문화예술경영전공 학부생들은 2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서울 종로구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센터 상명아트홀 갤러리에서 대학생 중심의 마음 건강 문화예술 프로젝트 'REFILL SCHOOL(리필 스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상명대의 'A-B-C 예술-Art, 비즈니스-Business, 문화-Culture) 특성화 선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부생 24명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감정의 '탐색-표현-공유-리필'의 4단계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감정을 나누는 예술적 소통의 장을 제공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운영된다.

3학년 학생 대표 추효진은 "감정을 미뤄두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공감과 치유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수 지도교수는 "대학로라는 문화 중심지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로,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이루는 모델이 될 것"이라 말했다.

같은 시기, 상명대학교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은 지난 25일부터

3일간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4축보형 로봇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2025 제1·로봇·시스템학회 학술대회'의 일환으로, 4축보형 로봇의 이동성, 균형 제어, 장애물 극복, 자율주행 알고리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본선에서는 로봇이 물품을 고객에게 배달하는 시나리오 미션까지 수행했다.

전국에서 70여 명의 연구자·학생이 20개 팀을 이루어 참여했으며, 최신 로봇 기술과 알고리즘을 공유하는 기술 교류의 장으로 주목받았다.

강태구 AI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실전 중심의 기술 습득은 물론, 다양한 주제 간 협업과 경쟁을 통해 로봇분야의 미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선화 기자 adzerg@dailycn.net



23일 국립한밭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 직후 최고경영자과정 동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립한밭대학교 제공)

'개교 100주년' 국립한밭대에 발전기금 이어져

기념사업추진위 공식 출범 지역사회·동문 기부로 축하

국립한밭대학교가 2027년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지난 23일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지역 사회와 동문들의 발전기금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출범식 직후, 최고경영자과정(AMP)을 수료한 6명의 동문들이 대학본부를 찾아 발전기금 총 4000만원을 기탁하며 기념사업의 성공을 기원했다.

기부에 참여한 동문은 △이종용 꽃빛한방병원 이사장 △김근태 디와이솔비타(주) 대표 △박종길 동아자동차(주) 대표 △김신영 서울바른치과원장 △강재중 (주)동국엔지니어링 대표 △박민 대전광역시시립협회 회장 등이다.

이어 지난 25일에는 80대 이상의 독지가가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는 뜻과 함께 1억원을 쾌척했다.

그는 "작은 보탬이지만 학생들에게 도움이 돼 졸업 후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한밭대의

100주년을 축하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외국어 위탁교육 전문업체인 (주)글로벌교육원에서도 출금을 축하하며 500만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오용준 총장은 "지역의 국립대학교로는 최초로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며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국립한밭대학교가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며, 지역 혁신을 선도하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su00329@dailycn.net

대전동부교육청 "위기 학생, 학교가 먼저 찾아갑니다"

맞춤통합지원 체계 시범 운영 6개교→ 내년 3월 전역 확대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대전 전역 확대를 앞두고, 시범 운영에 속도를 내며 현장 중심 모델 구축에 나섰다.

26일 대전동부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Care-Full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내실화를 위한 동부 학생맞춤통합지원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부 학생맞춤통합지원단'은 자문단, 추진단, 학교 지원단 등 총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 경제, 학업, 심리·정서, 안전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지역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 및 지자체 협의회를 통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 간 협업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Care-Full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는 △학교로 찾아가는 통합지원 △ONE-STOP 창구를 통한 통합지원의 두 축으로 운영된다.

특히, 찾아가는 통합지원 사례 회의는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학생 사례를 듣고,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안내·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복지·경제·심리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윤숙 재정복지담당은 "아직 협의 단계지만, 최대한 상담부터 복지 부분까지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교육부 지정 선도학교 2곳(△삼성초 △우송중)과 대전동부교육청이 자체 선정한 협력학교 4곳(△문창초 △보성초 △한밭여중 △경덕중) 등 총 6개 학교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선도학교에는 교육부로부터 각 600



지난 24일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동부 학생맞춤통합지원단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됐으며 협력학교는 대전동부교육청이 상반기 중 선정해 운영 중이다.

또한 대전동부교육청은 학교에서 접수된 학생 사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ONE-STOP 창구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동부교육청 내 부서 간 협업뿐 아니라 구청, 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전문기관과의 연계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Care-Full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는 오는 2026년 3월부터 대전 관내 전체 학교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부교육청은 선도·협력학교 중심의 시범 운영을 통해 운영 모델을 정교화하고 있다.

남수현 기자 su00329@dailycn.net

이 같은 Care-Full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는 오는 2026년 3월부터 대전 관내 전체 학교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부교육청은 선도·협력학교 중심의 시범 운영을 통해 운영 모델을 정교화하고 있다.

남수현 기자 su00329@dailycn.net

한서대, 충남 항공 관광상품 개발 '머리 맞대'

포럼 개최, 마케팅 전략 논의

한서대학교(총장 함기선)가 충남 항공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충남도·충남 문화관광재단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한서대는 지난 25일 서산 캠퍼스에서 '2025년 제3회 충남 문화관광 포럼'을 개최, 충남 항공 관광사업 활성화를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한서대에 따르면 한서대 교수진 등 항공 관광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포럼에서는 충남권 공항 개발을 통한 항공 관광사업 활성화를 비롯해 항공 관광상품 마케팅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김웅이 교수(한서대 항공교통물류학과)는 '충남 항공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충남형 항공 관광사업의 핵심 전략으로 한서대 항공 인프라 활용을 제안하며, "이

는 궁극적으로 항공·관광·지역경제가 융합해 성장하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패널 토론에서 윤문길 교수(한국항공대 경영학과)가 '서해안 지역 공항개발과 항공 관광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충남형 항공 관광사업의 기회와 과제에 대해 지정 토론을 펼쳤다.

이승규 기자 coq@dailycn.net

충북환경교육센터, 예비 환경교육자 실질 경험 제공

한국교원대 예비교사 참여 교육 프로그램 기획·실행

충북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와오는 26일, 한국교원대학교 환경교육과 예비교사들과 함께 예비환경교육자 커리어빌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환경교육센터와우가 운영 중인 '지구 6월 학교'의 기관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충북지역 대학과 교육청이 연계하여 예비 환경교육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올해는 한국교원대학교 환경교육과 예비교사들이 참여하였다.



와우센터와 함께한 커리어빌더 청년연계 프로그램 진행 모습. (사진=충북환경교육센터 제공)

한국교원대학교 환경교육과 예비교사들은 와우센터 교사들과 함께 협력하여 와우센터에서 진행할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보면서 환경교육 현장을 경험했고, 프로그램 이후에는 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와 소감 나눔을 통해 환경 교사로서 필

요한 역할을 성찰하고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예비교사 학생들은 센터를 방문한 주중초등학교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환경 퀴즈 겨루기 △양말목 만들기 △씨앗 폭탄 만들기 △환경 미니게임 올림픽 △환경 보드게임 배우기 등 다양한 환경 교육 체험 마당을 운영하며 색다른 경험도 진행했다.

배상호 창의특수교육과장은 "와우센터 중심으로 지역의 예비 환경교육자들이 우리 지역의 학교 학생들과 환경교육의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지역 환경교육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렬 기자 news7220@dailycn.net

목원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실전 취업 지원' 릴레이 특강

목원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가 취업 준비생들의 실전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26일 목원대에 따르면 '직무 릴레이 특강'과 '2025 취업역량 릴레이 특강' 등 릴레이 특강 시리즈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들이 직무별 필수 지식과 2025년도 채용 트렌드를 이해하고 체계적인 취업 실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

직무 릴레이특강에는 △2025 채용 트렌드 분석 △직군별 직무 소개 △주요 역할 및 필요 역량 이해 △직무별 취업 전략 등을 중심으로 구성

됐다.

이러한 취업역량 릴레이 특강은 △기업 유형별 채용전략 △입사서류 작성법 △면접 전략 등 취업 준비 전반에 걸친 실전 중심 교육이 이뤄졌으며, 두 프로그램에서 총 850명의 재학생이 참여해 수료했다.

남수현 기자 su00329@dailycn.net